

장백산천지

제 123 호

2009 년 2 월 6 일

금요일

사부님께 새해인사 드립니다!



광주 대법제자 드림



전세계 대법제자 드림



천진 대법제자 드림



루하 대법제자 드림



흑룡강 대법제자 드림



가목사 대법제자 드림

뉴욕 정부요인들이 신운 공연을 축하

신운뉴욕예술단과 신운국제예술단은 2009년 1월 23일, 24일(음력 선달 29일, 30일)에 세계 최고급 전당인 맨해튼 무선전성 음악청에서

공연했다.뉴욕시장, 국회의원, 뉴욕주의원들이 표창장, 축하신을 보내어 중국전통문화를 추동한 신운예술단의 걸출한 성과를 찬양했다.



뉴욕시장 뱀벌이 보내 온 축하신



초만원을 이룬 음악청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는 관중들

유럽의회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신당인신호를 회복할 것을 요구

2009 년 1 월, 유럽의회에서 첫번째로 《유럽 위성공사가 신당인의 중국에 대한 신호방송을 회복할 것을 요구》 하는 서명 성명을 통과했다. 이것은 유럽의회에서 제일 처음으로 중국문제에 관한 서명성명으로서 유럽의회가 중국인권에 대한 태도를 표명했다.

독일에서 온 의원 포셀트는 서명성명에 서명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권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바 서방과 동방은 인권 구별이 없고 유럽과 아세아도 인권구별이 없으며 공동한 인권과 자유가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 이 원칙을 준수해야만이 국제상에서 평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동료가 될 수 있다.》

겁을 먹은 중공매체는 오바마의 취임연설을 삭제

미국 신임 총통 오바마가 취임식 연설에서 《선배들이 파시즘주의와 공산주의를 패배시킬 때를 돌이켜 보면 그들은 자신의 도탄과 탱크에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고한 연맹과 견정한 신앙에 의지했던 것이다.》 라고 말했다.

중공의 대변자인 신화망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번역문을 실을 때 “공산주의”란 녀 자를 빼 버렸다. 중공의 또 하나의 대변인인 중앙텔레비전 방송국 뉴스 채널 생방송에서는 번역원이 《공산주의를 패배시킬 때》라고 말하자 그의 목소리는 끊어지고 녀 아나운서의 화면이 사라졌다.

신화망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또 오바마가 《탐오, 부패, 기편 그리고 이분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권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바 당신들은 력사의 오류 쪽에 섰지만 손을 떼기만 하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 줄 것이다.》라고 말한 이 한 대목을 삭제했다. 이것은 귀를 막고 방울을 흠치는 격으로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9 평공산당》이 발표된 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중공의 죄악과 사악한 본질을 알게 되어 이미 4 천 9 백여 만명이 “3 퇴(퇴당, 퇴단, 퇴대)”했다. 중공은 “천멸중공(天灭中共)”을 앞두고, “공산주의 격파”란 말만 들어도 “초목이 모두 적의 병사로 보여” 공포에 떨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는 300 량이 없다”는 식으로 자신이 범한 오류를 덮어 감추려고 했지만 중공사당의 두목과 그 졸개들은 바로 “탐오, 부패, 기편, 그리고 이분자를 탄압하는 것으로 권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핀란드 파룬궁학원들이 촛불추모활동을 거행

2009 년 1 월 27 일(음력 1 월 2 일), 핀란드 헬싱키 파룬궁학원들이 기차역전 옆에 모여 촛불을 켜놓고 9 년 동안 중공의 박해로 세상 뜬 동수들을 추모했다.



박해 받아 세상 뜬 파룬궁학원 김덕수

룡정시 동성용진 룡산소학교 교원이며 파룬궁학원인 김덕수(金德洙)는 2002 년에 파룬궁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면직되었다.

2003 년, 룡정시공안국 정보과 경찰들이 불법적으로 김덕수의 집을 수색했다. 그 당시 그가 집에 없었기에 경찰들은 그를 랍치하지 못했다. 그때로부터 그는 집을 떠나 류리걸식했다.

2006 년 2 월 28 일, 김덕수는 연길시국보대 대악경들에게 랍치되어 연길시간수소에 1 년 동안 갇혀 박해를 받았다.

2007 년 9 월 29 일, 김덕수는 사복경찰들에게 랍치된 후 로동교양 1 년 반 판결을 받고 길림성 음마하 로교소에 압송되었다. 악경들은 그를 차갑고 딱딱한 널판자 침대에, 머리, 목, 허리를 곧게 펴고 책상다리를 하고 오랫동안 앉혔다.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만 하면 경찰들은 그를 욕하고 때렸다. 그는 매일 고된 일을 하면서도 끼니마다 먹는 것은 자그만한 만두 2 개와 멀건 국물뿐이었다.

7 개월 동안 모진 학대와 시달림에 지친 그는 여위여 피골이 상접했고 엄중한 폐결핵에 걸렸으며 여러 번 정신 잃고 까무러쳤다. 그의 생명이 위독하게 되자 로교소에서는 책임을 벗기 위해 룡정시에 보내어 응급치료를 했으나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2008 년 12 월 31 일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연길시국보대대악인방

허효봉	대대장	13039085155
초 빈	부대대장	2999030
현용선	부대대장	13904480013
송립해	중대장	2999369
시덕지	중대장	2511442

